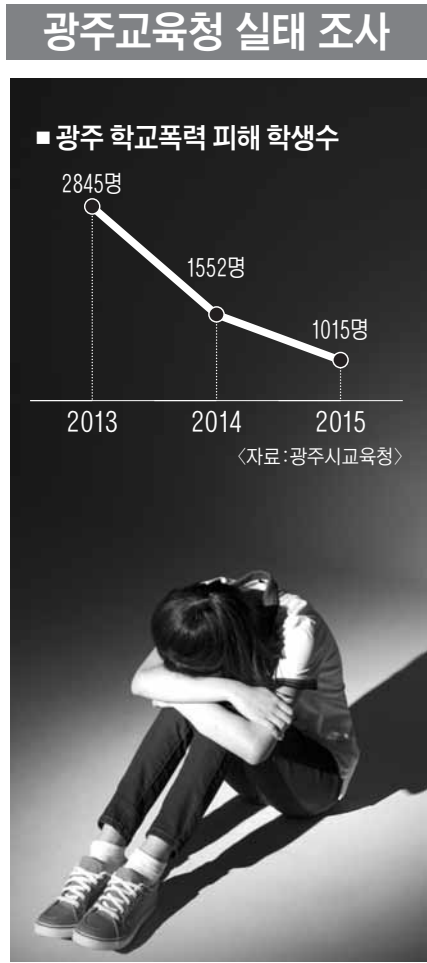


광주 학교폭력 피해자 2년새 확 줄었다



2845명→1015명 급감...현장 신속지원 부르미제 효과

신체폭행 줄고 언어폭력 늘어...사이버 괴롭힘 증가세

2013년 3000명에 육박했던 광주 학교폭력 피해자 수가 2년만에 1000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학교폭력 양상도 신체 폭행은 줄어들며 언어 폭력과 사이버 괴롭힘은 확산되고 있다.

1일 광주시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광주지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13만296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14일부터 10월23일까지 '2015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0.76%인 1015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2차 조사때 1552명(1.1%)보다 537명(0.35%포인트)이 줄어든 수치다. 2013년 2845명(2.2%)과 비교하면 2년새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11%인 483명, 중학생은 0.62%인 320명, 고등학생은 0.56%인 210명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0.29%포인트, 중학교는 0.58%포인트, 고교생은 0.14%포인트 감소했다.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750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따돌림 352건(16.7%) 순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과거 학교폭력의 상징이었던 신체 폭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 추세다"고 밝혔다. 언어폭력은 육설과 뒷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0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진' 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 A군에게 "너희 엄마는 너 같은 xx 낳고도 기분 좋다고 미역국 드셨냐? 너희 아빠는..."이라며 언어폭력을 가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언어폭력을 '패드립'이라고 부르고 있다. '패드립'은 부모·조상을 욕되게 하거나 개고 소재로 삼아 놀리는 언어폭력이다.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은 "주먹과 발로 직접 때리는 방식의 폭력은 쉽게 눈에 띄어 처벌로 연결되지만 언어폭력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더라도 학교에서 문제 삼기도 애매해 급격히 확산하는 추세다"고 말

했다. 학교폭력 유형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집단따돌림 비중이, 학교급이 높을수록 신체폭행·금품갈취 비중이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는 주로 교실 등 학교 안에서 쉬는 시간에 발생하고 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감소 원인을 학교현장 신속 지원형 '부르미'제도를 꼽았다. 부르미는 광주시교육청이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 가중·실종 등 학생생활 위기, 자살 시도 등 학생들에 대한 위기상황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학교와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기관리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 도입, 이날까지 139건을 해결했다.

박주정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은 "사후 수습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학생생활교육을 하고 있다"며 "학교현장 신속지원 사업인 '부르미' 제도와 학교전담 경찰관들의 협조, 현장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등이 학교폭력 감소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소원 심판청구

민변 등 3개 단체 추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3개 단체는 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와 근거 법률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교과용도서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과서 국정화 강행의 본질이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고, 단일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이여 국정화가 헌법의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교육제도법정주의 ▲ 교사의 수업권·인격권·양심의 자유 ▲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 집필자·출판사의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가 2013년 유엔총회 등을 통해 '국가가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이달 15일 오후 4시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이후 이달 중순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연쇄 추돌사고 혼잡 1일 오후 5시 40분께 호남고속도로 광주방면 순천 1터널 인근 내리막길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파손된 차량들로 인해 지나는 차량들이 큰 혼잡을 빚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념재단, '5·18 인정교과서' 새로 만든다

사건 나열 대신 가치 중심으로...대학생 교재 개발도 추진

학교 교육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이해를 돕는 인정교과서가 새롭게 개발된다.

5·18 기념재단은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5·18 인정교과서와 대학생을 위한 5·18

교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기념재단은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2008년 초등·중등(중·고교)용 5·18 인정교과서를 개발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초등용은 저학년·고학년용 2종으로, 중등용은 중학생·고등학생용 2종으로 세분화한다.

5·18 인정교과서는 공교육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개발·보급된 것이었지만 그간 학년별 눈높이에 맞춰 보다 세분화된 교과서를 개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재단 측은 새롭게 개발될 5·18 인정교과서가 한국사(역사) 수업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수업 시간에 부교재로 쓰일 수 있도록 기존 사건 나열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서술 방식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대학용(고등용) 교재도 개발이 추진된다. 대학에서는 그간 5·18 관련 논문을 엮은 형태의 민간 출판사 책을 부교재로 사

용해왔지만 기념재단은 80년 5월 당시의 사진, 신문기사,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5·18 콘텐츠를 균형잡힌 시각으로 묶어 소개하는 교재를 개발한다.

인정교과서 집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경기지역 등 전국의 학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참여한다. 초등용 인정교과서는 2017년, 중등용과 대학용은 2018년에 보급을 목표로 교재 개발과 집필진 구성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기념재단은 공모사업으로 제작된 5·18 만화 '메이피플'을 지난날 30일부터 국내 주요 웹툰 사이트에서 연재 중이다. 웹툰 제작은 홍성담 화백과 공성술 작가가 글과 그림을 각각 맡았다. 5·18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내용의 작품은 정치적 내용보다는 광주 시민들의 사랑과 우정, 슬픔, 열정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웹사이트 '네이버 스토리', '짱만화' 등 6곳에서 만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비...내일·모레는 눈 소식

2일 광주·전남지역에 내리는 비가 3~4일에는 눈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일 광주·전남지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5~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돌풍과 함께 전동·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예상 기온은 아침 최저 영상 3~9도, 낮 최고

영상 12~14도 사이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에는 광주·전남 전 지역이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3일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오다가 밤에 눈으로 바뀌고, 4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3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전남 동부내륙 3~8cm, 광주 등 그 밖의 지역은 1~3cm다.

/김정욱기자 kki@kwangju.co.kr

피고인만 70명 법정출두한 이유는

광주지법서 보험사기 혐의 무더기 재판

"나○○씨 왔어요 1번이에요. 강○○씨는 2번, 박○○씨 3번... 번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번호와 이름을 부르면 순서대로 법정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1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402호 법정 앞. 수십명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 직원의 지시를 듣고 있었다. 법정 앞에 붙은 공판 안내문에는 무려 70명의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모두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 사건에 피고인이 70명이나 되고 한꺼번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건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5명씩 진행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 한명씩에 대한 인정신문을 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시 북구의 모 한의원에서 마취 임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험회사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된 이 한의원 원장 김모(60)씨가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한의원을 찾아 임원치료를 받기 위해 허위 보험료를 냈었다. 이렇게 허위 임원으로 피고인들이 쟁쟁한 보험금만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의원은 야간 치료시설이나 입원실이 설치되지 않아 입원치료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을 받은 상당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랐다. 다소 긴장된 표정과 함께 눈가에 촉촉함이 밴 한 피고인은 "늙어가고 있다"며 고개를 떨었다.

반면 "과파서 병원에 갔고 입원료를 받았다. 몇 번 외출한 것 뿐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입원횟수와 보험금 수령액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피고인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을 채택했고, 총 26세에 불과한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 중간중간에 '번호순서대로 (재판) 진행 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연락처 변경' 쪽 연락하라'는 내용 등 각종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피고인들에게 많은 징역 1년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법조인은 "경제가 어렵다보니 보험사기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달구지 타고 가던 형제의 비극

순천서 승용차가 들이받아 동생 숨지고 형은 위독

순천에서 승용차가 소달구지를 추돌해 달구지에 타고 있던 형제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분께 순천시 승주읍 신항마을 앞 지방도에서 김모(여·32)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소달구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소달구지에 타고 있던 박모(54)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박씨의 형(75)이 병원에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박씨 형제는 이날 집에서 기른 야채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집을 나섰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가 승용차 앞유리에 큰 상해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고 운전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부딪히기 전까지는 두 사람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ikim@

대학 징계위, 여친 폭행 의전원생 제적 결정

같은 학교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광주지역 한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생(본보 30일자 6면)이 제적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은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징계를 미루다가 여론에 밀려 '뒷북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일 광주지역 모 대학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자친구 감금 폭행으로 논란이 된 A(33)씨에 대해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제적으로 정했다.

최종 징계 확정은 향후 열릴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에서 결정된다.

피해자인 B(여·31)씨는 폭행사건 이후 학교에 가해자 처벌과 함께 수업 시간 조정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방관했다.

이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은 감금과 폭력을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가해자 징계를 법적 결과에 의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민기자 kki@

대학원 교수회의에서 결정된다.

피해자인 B(여·31)씨는 폭행사건 이후 학교에 가해자 처벌과 함께 수업 시간 조정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방관했다.

이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은 감금과 폭력을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가해자 징계를 법적 결과에 의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민기자 kki@

광주 고교생 4명 중 1명 "강요에 의해 야간자율학습"

광주지역 고등학교 4명 중 한 명은 강요에 의해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광주지역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34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율학습·방과후학교 자율 참여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고등학교생 23.7%가 '타인의 강요'에 의해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강요 외에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한 동기는 본인희망 58.3%, 교사권유 9.7%,

부모권유 8.3% 등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강요' 유형으로는 학교분위기 58.2%로 가장 많았고, 교사강요 27.3%, 부모강요 10.3%, 기타 4.2%로 분석됐다. 방과후학교 참여 동기로는 본인희망 56%, 타인의 강요 23.9%, 교사권유 12.7%, 부모권유 7.4% 순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 강요 유형으로는 학교분위기 61.9%, 교사강요 25.6%, 부모강요 7.2%, 기타 5.3% 순으로 조사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경쟁 헬스클럽 회원모집 현수막 훼손한 30대 탈기



○~건물 1개 동을 사이에 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 헬스클럽의 회원모집 현수막을 훼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탈기.

○~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헬스클럽 트레이너 김모(31)씨는 지난달 20일 자정께 남구 봉선동의 한 건물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박모(41)씨가 건물에 걸려든 10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

으로 뜯어 망가뜨린 혐의.

○~회원 모집을 위해 게시한 현수막이 갈기갈기 찢긴 채 나뒹구는 모습을 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건다가 '맛진 몸매를 원하십니까'라고 시작되는 경쟁 업체의 홍보물을 본 순간 잠을 수가 없었다. 경쟁 업체 사이에서는 왕왕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냐"고 되레 큰소리.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3, 해질 17:20, 달출 23:38, 달몰 12:09

우산 챙기세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주	호리고한때비	6/12	보	성	호리고한때비	1/12
목포	포	호리고한때비	7/13	순	천	호리고한때비	6/14
여수	수	호리고한때비	9/13	영	광	호리고한때비	5/12
나주	주	호리고한때비	3/12	진	도	호리고한때비	7/14
완주	도	호리고한때비	7/14	전	주	호리고한때비	6/12
구례	례	호리고한때비	2/13	군	산	호리고한때비	4/13
강진	진	호리고한때비	4/14	남	원	호리고한때비	3/11
해남	남	호리고한때비	4/14	옥	산도	호리고한때비	11/13
장성	성	호리고한때비	3/11				

◇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남서	0.5	서~북서	1.0~2.0
남해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	서~북서	1.5~3.0
남해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0.5~1.0	서~북서	0.5~1.5
	앞바다(서)	남동~남	1.0~1.5	서~북서	1.0~2.5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6:12	11:23
	18:52	00:00
여수	00:51	06:53
	13:29	19:42

◇ 주간날씨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	☁	☁	☁	☁	☁	☁
3/6	0/5	2/8	3/9	4/10	2/11	2/12

◇ 생활지수

체감온도	관심
☁	낮음
☁	보통
☁	높음